



광주시 감사관실은 지난 30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점점의 불법 전대 등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롯데쇼핑 측에 대해 고발과 함께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체육지원국에 요구했다. 사진은 월드컵점 전경. /최현백기자 choi@

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 전대 고발 조치·사용허가 취소 요구

광주시 감사관실 “年 수익금 70억에 사용료는 45억”

광주시 감사결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점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결과 롯데쇼핑(주)는 2014년 광주시가 승인 허가한 면적(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만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이 수익금만 연간 70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광주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롯데쇼핑 측에 대해 고발과 함께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체육지원국에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롯데쇼핑(주)이 매출액

29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 인상이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대면적은 증대시키고, 매출액은 감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따라서 전대면적 증가가 대부분 인상에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감사관실은 또 롯데쇼핑(주)이 임할 공고시 대부분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도 맞지 않고, 사용료 산정에서도 근거도 없는 영업 요율을 적용해 연간 5억~6억원을 더 받지 못해 광주시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14년간 사용 조건으로 12억원을 받았던 주차장 사용료도 공시지가(㎡당 16만 6000원)를 감안하면 최소 60억5000만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12억원 이외에 28억

원을 기부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더해도 20억원 이상 재정손실을 본 셈이다.

감사관실은 2004년 최초 협약 당시 입찰과 대부계약 업무를 했던 실무자(6급)부터 국장(3급)까지 모두 퇴직을 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분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관련 실국에 조치를 통보한 것일 뿐 아직 운영현 시장의 결재가 난 것이 아니라서 최종 조치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불법 전대에 대한 의혹이 일자 운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롯데쇼핑(주)은 서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내 5만7600여㎡를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연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전대 수익이 대부분을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현백기자 cki@kwangju.co.kr

프로야구 경기 열리면 주변 상권 웃는다

광주 임동 등 시즌 매출 10% ↑

프로야구가 주변 상권에 평균 10%가량의 매출증대 효과를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가 지난 2년간 국내 6개 야구장의 반경 2km 주변에 위치한 동 단위 상권의 할인점·슈퍼마켓, 편의점, 대중음식점, 주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업종의 월별 카드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프로야구 정규시즌의 매출이 비(非)

시즌보다 10% 이상 많았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는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주변의 임동, 서울 잠실구장 주변의 잠실동·잠실본동·잠실2동, 인천 SK행복드림구장 부근의 문학동,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인근의 부사동, 대구 구장 근처의 고성동, 부산 사직구장이 위치한 사직동을 분석 대상 행정구역으로 삼았다.

2010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프로야구

각 구단의 지출 내역과 입장수입, 관람객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평균 지출내역 등을 토대로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적은 있으나, 실제 주변 상권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야구 정규리그 경기가 벌어진 지난해 4~10월과 올해 4~9월 등 13개월간 이들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55억8200만원으로, 정규리그 경기가 거의 없던 1~3월, 11~12월의 평균 50억3950만원보다 약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격 못 갖춘 여수 복합리조트 본심사에 포함 여부도 불투명

문체부 “추가 보완 불가”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공모 참여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제안서(RFP)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AOL통상 컨소시엄(AOL)은 이날 ‘5000만 달러 선납’ 등 공모 참여조건을 12월 초까지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미 공고를 통해 ‘추가 서류 보완 불가’ 원칙을 밝힌데다 청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침서상 ‘청구 무효’에 해당돼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30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AOL은 이달 초까지 외국인 투자 5000만 달러를 중국건설은행 본점과 서울지점, 외환은행을 거쳐 선납하고, 외국인 투자 2억 달러 대출확약서는 싱가포르 SC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예정이다.

AOL은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까지 현금 5000만 달러 선납, 총 사업비 1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 5억 달러 이상, 국제신용등급 BBB 이상(그 이하일 경우 2억 달러 대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 해외 지분출자자인 싱가포르 ETON의 자금납입 투자확약서(LOC)로 대체한 바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이달 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문체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이 같은 서류 보완에 부정적이다. 자격 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사전심사위원회의 몫이지만, 공고와 공모지침서를 통해 ‘청구 자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7일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공고에서 청구인의 필요에 따른 서류 보완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또 공모지침서에서도 청구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청구한 경우는 청구무효 사유”라고 말했다.

조민간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사전심사위원회가 제반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접수한 AOL 등 4개 사업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문체부와 협의의 통해 본심사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4곳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중이며, 신속하게 조건을 완비한 뒤 문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합리조트 RFP 청구 가능지역은 여수 경도 1곳, 경남 진해 1곳, 부산 북항 1곳, 인천 6곳 등 4개 광역자치단체 9곳이 있으나 문체부의 높은 청구 자격 요건과 중국 자본 이탈 등으로, 5곳 6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인천의 2개 사업자만 청구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백기자 chadol@kwangju.co.kr

‘새 단장’ 광주공원 현충탑 내일 제막

광주공원 현충탑이 2일 새 모습을 선보인다. <사진>

광주시는 2일 오후 2시 광주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운장현 시장과 조영표 시의회의장, 시교육장, 제31사단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충탑은 6·25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현충탑 탑신을 6각형 기단과 25m 높이로 형상화하고, 영원의 빛을 주제로 화강석과 스테인레스 밀러 재질로 조형미를 살렸다.

또한 헌시(獻詩) 비문은 시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지역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의 글씨를 받아 부조 벽면에 새겼다.

기존 ‘우리 위한 영의 탑’ 부조 원형 일



부를 탑 광장에 보존 전시해 탑의 역사성을 계승했다.

문자가 참여한 TF 회의를 열어 현충탑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는 그동안 보훈단체와 연계

한편, 시는 그동안 보훈단체와 연계

한국, 핵발전소 의존도 세계 4위...신재생에너지 82위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의존 비중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 세계 최하위권인 82위에 그쳤다.

30일 세계 각국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94기가와트(GW)로 전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유럽연합이 9071GW로 1위, 중국(1505GW)이 2위, 미국(1063GW)이 3위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생산량 순위는 517테라와트(TW)로 11위, 소비량 순위는 482TW로 10위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해 13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생산과 소비, 설비용량 수준은 경제규모와 비슷한 셈이다.

그러나 발전원료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전력 산업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무술산 여성' 희망 33~67세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6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휘산빌딩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